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한국시리즈 KIA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5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KIA 선수들이 김기태 감독을 행가래 치고 있다.

### KIA 타이거즈, 올 시즌 대비 만반의 준비 마쳐

## '우리 이러다 또 우승할라'

베테랑 자유계약선수(FA) 김주찬까지 붙잡은 KIA 타이거즈가 2018시즌 챔피언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왕조 구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KIA는 16일 "FA 내야수 김주찬과 2+1년 계약금 15억원 연봉 4억원 등

으로 보인다.

8년 만에 통산 11번째 우승을 달성한 KIA는 올 시즌 V12와 함께 왕조 구축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력의 핵심인 기존 외국인 선수 셋인 헥터 노에시(200만 달러), 팻 딘(92만5000 달러), 로저 버

이다. 잔류를 택한 김주찬과 베테랑 이범호는 젊은 선수들을 진두지휘한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나지완, 안치홍, 이명기, 김선빈 등은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혔다. 임기영, 김민식, 김호영, 김윤동 등 젊은 선수들도 성장을 거듭했다.

2015년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 3년간의 리빌딩 과정을 거쳐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KIA는 김기태 감독에게 장기 집권을 약속하며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과감한 투자로 챔피언 전력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게 했다.

타이거즈는 1980~90년대 해태 시절 4연패 포함 9회 우승을 차지하며 KBO리그를 호령했다. 이후 KIA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우승은 두 번에 불과하다. 2009년 KIA 타이거즈로 첫 우승을 달성했지만 이듬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명가 재건의 꿈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했다. 포스트시즌 진출과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어떻게 잡은 챔피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력 누수를 막았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명가 재건을 위한 필요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2018시즌 한국시리즈 2연패를 위한 모든 구상을 마쳤다. 스프링캠프 기간 현 전력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달렸다.

부상으로 지난 시즌 전력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 윤석민이 돌아온다면 외부 영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윤석민이 성공적으로 복귀만 해준다면 KIA 마운드는 선발과 볼펜 두루 여유가 생긴다.

여기에 우승팀 DNA를 물려받은 어린 선수들이 광폭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명가 재건의 꿈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헥터 등 외국인 트리오·양현종에

### 베테랑 자유계약선수 김주찬도 잔류

### 올 시즌 챔피언 전력 그대로 유지

### 윤석민 부활하면 외부 영입효과까지

총액 27억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주찬은 지난 시즌 주장을 맡아 준수한 개인성적을 거두며 선수들을 이끌고 한국시리즈 제패에 일조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었는지 해를 넘겨 계약이 성사되긴 했지만 팀에 남은만큼 공수에서 큰 보탬이 될 것

나디나(110만 달러)와 일찌감치 재계약했다.

KIA의 V11을 책임지며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MVP를 동시석권한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도 연봉 23억원에 2018시즌 계약을 마무리했다.

FA계약 첫해 팀을 우승으로 이끈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팀 타선의 핵

### 전북현대, 선진 축구시스템 구축 신임 기술위원에 조공연 위원 선임



#### "그동안 보고 배운 모든 것 쏟아 부을 것"

전북현대모터스가 선진 축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기술분과위원과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장을 역임한 조공연(57) 위원을 테크니컬 디렉터(기술위원)로 16일 선임했다.

조 위원은 오랜 기간 선수와 감독으로 활동해 현장 노하우가 풍부하고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행정가로 다년 간 경험을 쌓았다. 전북의 클럽 철학을 세우고 팀의 정체성과 방향 설정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조 위원은 프로팀뿐 아니라 유소년팀의 전반적인 선수 선발 기준을 확립해 전북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크다. 그동안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전북 현대가 세계 유수의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권 단장은 "이제 전북은 단순히 선수를 영입하는 팀의 구조를 벗어나 선수를 육성해 팀을 완성해가는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며 "테크니컬 디렉터 선임은 우리가 세계 속의 명문 구단으로 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 전북현대가 16일 조공연 위원을 구단 기술위원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 위원.

### 올 시즌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에 신한은행

#### 2020년까지 3년간

KBO가 2018~2020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에 신한은행을 확정했다.

KBO와 신한은행은 1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2018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2018시즌 KBO 리그의 공식 타이틀 명칭을 '2018 신한은행 MYCAR KBO 리그'로 결정하고 엠블럼도 공개했다.

이번 타이틀 스폰서 계약은 3년간 총 240억원 규모다.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스폰서 계약 역대 최고액이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은 "KBO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KBO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신한은행은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 두 기관의 만남이 야구를 즐기는 모든 분들의 삶을 더욱 힐링하고 따뜻하게 하면 좋겠다. KBO리그가 1000만 관객을 넘어 꿈



2018 KBO리그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정운찬(오른쪽) KBO총재와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2018 KBO리그 엠블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희망을 주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O 정운찬 총재는 "지난해 KBO 리그는 840만 관객을 돌파했다. 프로야구는 국내 최고 프로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내년에는 박병호, 김현수 등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선수가 있고, FA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2018시즌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신한은행에게 깊은 감사를 한다. 신한은행은 명실상부 한국의 리딩뱅크,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은행이다. 대한민국 최고 은행이 KBO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두 기관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앞으로 KBO리그는 1000만 관객 시대를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타이틀 스폰서 계약으로 3년간 KBO 리그의 공식 타이틀 사용 권리를 가지며, KBO 리그와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10개 구단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